

아드반테스트 “반도체 위기에도 지속 성장…노사 협력 결실”

ADVANTEST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장세에도 불구하고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고대역폭메모리 HBM 등 한층 고객의 전략적 설비 투자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최석균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대표는 “원부자재 조달 문제 등 어려운 공급망 여건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팀워크를 발휘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좋은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나란히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상호 도와준다”라면서 “회사의 조직문화 개선 활동의 최종 목표는 자율과 책임 문화를 사내 정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진정한 ‘권한 부여(Empowerment)’를 통해 주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어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업무 몰입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업무 몰입도가 높다는 것은 일을 통해 임직원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라면서 “쉽게 말하면 ‘행복 경영’으로 바뀌

최석균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대표
韓 고객, HBM 설비 투자 등 늘어
연결매출액·이익 최고 기록 경신

직원 소통·책임 문화 정착 목표로
올 창립 70주년 새로운 비전 제시

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새해에도 조직 내에 회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권한 부여가 완벽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조직의 마인드와 태도, 일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바꿔 나갈 생각이다.

-대표에 취임한 지 2년이 넘어섰다. 그간 기업 성장 과정을 소개하면.
▲2022년도 아드반테스트그룹 연결매출액과 이익은 창립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실적 또한 과거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023년도에도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양호한 경영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아드반테스트코리아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아드반테스트는 올해 창립 70주년



INTEGRITY ADVANTEST

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해 ‘세미콘코리아 2024’ 마지막 날인 2월 2일에 70주년 기념 행사와 테크니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아드반테스트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100년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다양한 콘텐트로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 협력사와 상생 발전을 위해 펼치는 주요 활동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력 강화, 제조-품질 기술 향상 등 제조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협력사와의 회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

고 상생 발전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시장 상황, 비즈니스 상황, 구매정책, 개발 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사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와 논의된 많은 의견은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아드반테스트의 경쟁력이다. 아드반테스트의 품질·기술 DNA를 협력사에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협력사와 지속 동반성장을 위해 새해에도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다.
-임직원과 열린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아쉬운 점은.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더불어 각종 회의 방식과 제도를 바꿔왔다. 그리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문화개선 위원회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회의 방식도 변화를 줬다. 한 방향 위주의 보고 형태가 아닌 상호 직원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토론하는 양방향 방식으로 바꿨다.

한국 시장에 일터를 둔 기업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알리기 좋은 일터, 신바람 나는 일터,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K-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세대 간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난 2년간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관리직의 의식 개선도 조금 더 필요하고 말단 직원까지 뿌리를 내리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대 간 생각의 차이가 같으므로 변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타통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심리적 안정감이 조직 내부와 협력사

까지 한층 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정책 중 환경 대응을 소개하면.
▲ESG에서 S와 G는 업종에 무관하게 공통사항이 많다. 반면 E는 제조업의 특성상 생산 제품에 따라 각 기업이 대응하는 목표와 방향성이 다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드반테스트는 ESG 추진 기본방침을 책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ESG 팀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책과 탈탄소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각종 소모품을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공장부지 내 나무 가꾸기 확대, 사내 문서의 페이퍼리소스, 효율을 에너지 절비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절감 내지는 탄소중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단 내 관련 업체 직원들이 탈탄소화에 동참하도록 공단 내 3개사와 협력해 출퇴근 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향후 당사는 RE100 (Renewable Energy 100%)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제자유 생산본부 구매팀 사원 “공급망 변수·리스크 관리 자부심 느껴”

“구매 부서는 비용 지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민감합니다. 협력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상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회사 이익에 이바지했을 때 뿌듯합니다.”
제자유 사원(구매팀)은 “구매 부서는 공급망 관리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회사 손익과 직결된 부서인 만큼 부품을 조달하고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부심을 갖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입사 동기는.
▲최근 정보기술(IT) 기기를 넘어 차량용 반도체나 생체형 인공지능(AI) 등으로 반도체 용도가 다양화되며 반도체 품질을 검증하는 테스트 역할 또한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문에 아드반테스트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원동력을 지닌 매력적인 회사라고 판단해 2022년 7월에



입사했다.
-업무 고충은.
▲공급망에 변수가 생겨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 업무 고충을 느낀다. 공급망 관리 위험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협력사 동향을 파악하면서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지만 해결했을 때 성취감이 크다.
-회사 경쟁력은.
▲확실한 기술경쟁력으로 고객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회사가 가진 경쟁을 바탕으로 반도체 경기 상승 국면에서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배인아 영업본부 ATE SW개발팀 UI 부문사원 “글로벌팀·고객사와 다양한 경험 장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본 엔지니어 등 글로벌팀과 협업은 필수이고 긴밀한 상호 소통 과정을 거칩니다. 같은 목표를 갖고 협업하다 보면 더 잘 해내고 싶다는 사명감이 생기면서 업무 능력이 향상됩니다.”
배인아 사원은 “이는 글로벌 회사에서만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사 핵심 가치인 ‘INTEGRITY’ 중 하나인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TE SW 개발팀 업무는.
▲회사는 메모리, SoC 등 다양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ATE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이 주 업무이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핸들러, 프로그램 등 장비에서 TCP-IP, GPIB, SECS-GEM 인터페이스 개발과 고객사 요구에 맞는 결과 분석과 솔루션을 제



공하는 볼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자로서 고충과 자부심은.
▲전국에 소재한 고객사 아드반테스트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 모든 고객사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인 만큼 출장이 잦고 하루 반나절을 운전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또 생산설비는 365일 연중 무휴로 가동되어야 한다.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이 실제 제품 생산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자부심을 갖는다.
-자기개발은 어떻게 하나.
▲업무 자체가 해외 타 부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내 어학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 꾸준히 영어와 일어를 공부하고 있다.

김윤식 영업본부 FA팀 사원 “엔지니어 역량 기르고 기업 복지 만족”

“엔지니어로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인 성장도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 기업을 찾아보면 중 아드반테스트를 알게 됐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일뿐만 아니라 기업문화와 조성에 힘쓰는 것을 보고 자랑했습니다.”
김윤식 사원(영업본부 FA팀)은 “DI/FA 부서에서 FA팀 HW 개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 주로 테스트 핸들러 기구 개발, 설계, 고객 요구에 맞는 옵션 개발과 개조-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계 업무 고충과 자부심은.
▲반도체 설비 특성상 정밀하고 복잡한 과정에서 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도전과 맞닥뜨린다. 세부 사항까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시간과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업무에 속한 편이다. 그러나 개발부터 고객 양산까지 모든



단계에서 터득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큰 자산으로 생각한다.
-아드반테스트의 직장점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력과 열린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보람 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갖춘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단점으로는 장비 업계 특성상 출장 업무가 잦은 편이다. 하지만 다양한 고객의 설비를 다루는 현장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자랑할 만한 복지제도는.
▲첫 번째는 동호회 활동 지원이다. 1인당 2개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복지카드이다. 문화활동, 여행, 의료비 등 사용할 수 있다.